

# 퇴근길 가볍게 한잔... '스몰 비어'가 뜬다

(Small Beer)

## 봉구·광수비어 등 소형 맥주전문점 잇단 개업

## 복고 열풍속 가격 저렴해 주류문화 새 트렌드로

퇴근길 가볍게 한 잔 술이 생각날 때 찾을 만한 소형 맥주전문점들이 뜨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손님들의 주머니가 얇아진 가운데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도 소자본으로도 심 자투리 점포를 찾아 잇따라 개업하고 있어 이들 업소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광주 지역 상무지구와 수완지구, 구시청 사거리 등 도심 골목골목마다 봉구, 광수, 춘자 등 친숙한 이름을 단 스몰비어(Small Beer)컨셉트의 주점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스몰비어는 10㎡(3평)에서 66㎡(20평) 남짓한 작은 규모의 다락방 점포에서 저렴한 가격대의 안주를 판매하는 주점이다.

생맥주 500cc 한 잔에 2500원, 안주는 3000원~1만원 대로 학생이나 직장인 등 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참 인기가 있다.

이들 가게들은 퇴근길 집 근처에서 간단하고 싸게 맥주를 마실 수 있다 등 장점과 TV 드라마 '응답하라 1994' 등 복고 열기가 겹치면서 최근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어 주류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또 스몰비어 바람이 불면서 유사한 컨셉트의 브랜드들도 대폭 늘어 현재 '봉구비어', '광수비어', '오촌자비어' 등 10여개나 된다. 이처럼 스몰비어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자투리' 상권을 공략했기 때문이다.

주요 상권에 들어서 있지 못 보증금이나 권리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골목에 10평 규모로 자리를 잡다보니 초기 창업비용이 업체별로 평균 4000만~6000만원 선이다.

이 중에서 스몰비어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봉구비어는 지난 2012년 7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시작해 현재 전국 300여개 점포를 보유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광주에 상무지구 등에 현재 12개점포가

영업중이다.

봉구비어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소자본으로 문을 열 수 있는데다 복고 열기로 사업장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현재 개업을 준비하거나 가맹을 문의하는 경우도 여러 곳 있어 그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에서 창업한 광수비어는 올해 7월 광주시 북구 오치동 본점을 시작으로 서울에도 진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양희수 광수비어 대표는 "불황에 창업을 고민하는 경우 다른 사업들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광주의 맛과 향수를 자극하는 내부 장식,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한점이 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내·외관이 유사한 컨셉트를 가진 소형맥주전문점들이 도심 골목가에 획일적으로 들어서서 우려하기도 했다.

대학생 박모(24)씨는 "브랜드별로 간판 색깔이나 인테리어까지 거의 똑같아 보여 한 회사가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느라 일었다"며 "비슷한 컨셉트의 주점들이 잇따라 들어서 도심의 개성을 잃게 하는 것은 손님이나 업자들 모두에게 안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외식업 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이나 현재의 인기만 믿고 창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시장조사를 통해 주점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창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공인회계사회, 이웃돕기 500만원 전달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선홍규·사진 왼쪽)와 소속회원들은 23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회장 김상열)를 찾아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선홍규 회장은 "광주 전남지역 공인회계사 일동이 경기침체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조그만 정성을 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의 활성화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는 회계와 세무분야 전문가로서 사회복지를 위한 회계멘토링사업과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한국 주가상승률 OECD중 최하위

올해 우리나라 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아베노믹스' 효과에 힘입어 주식시장이 50% 이상 급상승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한국 코스피는 1,983.35로 올해 상승률이 -0.7%를 기록했다. 코스피 상승률은 OECD 34개 회원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OECD 회원국 중 지수가 내려간 곳은 한국 코스피와 칠레 IGPA(-13.6%), 터키 ISE100(-11.0%), 체코 PX(-5.9%), 멕시코 IPC(-3.5%) 등 5곳뿐이다.

나머지 30개국은 지수가 상승했고, 특히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작년 말 10,395.18에서 이달 20일 15,870.42로 52.7% 급등하며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아일랜드 ISEQ(32.3%), 아이슬란드 ICEX(25.9%), 핀란드 HEL25(25.8%),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23.8%), 그리스 종합(23.8%), 독일 DAX(23.5%), 덴마크 KFX(22.0%), 노르웨이 OSE(20.5%) 등의 순으로 지수 상승률이 높았다.

같은 기간에 미국 나스닥 종합지수는 35.9%,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27.5% 각각 올랐다.

/연합뉴스



## 광은 '사랑의 연탄니눔'

광은은행(은행장 김창학·왼쪽 두번째)은 24일 은행장과 신입직원 20여명이 광주시 북구 유동동 주택가를 찾아 독거 노인 및 조손가족 등에 연탄을 배달하고, 보온용품 전달하는 등 '사랑의 연탄니눔' 봉사 활동을 펼쳤다.

<광은은행 제공>

## 롯데백화점 광주점 '블랙프라이데이' 대박

### 3000여명 찾아 4억 매출

광주에서 처음 열린 '블랙프라이데이' 행사가 3일 동안 3000여명이 찾는 등 '대박'을 터뜨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광주시 서구 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롯데백화점 광주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3000여명의 고객이 몰리면서 예상매출 목표를 초과해 4억원의 매출 실적을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광주에서 열린 '블랙프라이데이'에서 가장 이목을 끈 행사는 명품 특별 초대전, 프라다, 펜디, 지방시, 입생로랑 등 광주에서 판매되지 않는 15개 해외명품 브랜드를

해외 직소싱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해 호응을 얻었다.

명품 특성상 할인율이 높지 않아 다른 상품군에 비해 많은 판매고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행사 기간 동안 총 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며 광주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품목별로는 세일율이 높은 장갑, 목도리 등 패션 잡화 상품군과 시계박람회와 전시·진열 상품들이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고은성 롯데백화점 광주점 홍보과장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가격적인 세일에 고객들이 기대이상으로 몰린 것 같다"며 "내년에도 볼거리가 많은 행사를 기획해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전남 법인기업 안정성 개선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법인기업의 수익성 지표가 악화된 반면, 안정성지표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결산일 6~12월인 광주·전남지역 소재 영리법인 3만4791개를 대상으로 발인 '2012년 광주·전남지역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성장성지표인 매출액 4.4%로 전년 10%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했으나 총자산증가율(2.8%→6.6%)과 유형자산(7.7%→11.9%)은 전년 대비 확대됐다.

수익성은 매출액영업이익률(5.1%→4.0%)이 전년 대비 하락한 데다 영업외수지 적자폭도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세전순이익률(4.1%→2.1%)이 매출액영업이익률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안정성 지표인 차입금의존도(35.6%→36.4)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부채비율(182.6%→168.4%)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11.7%→7.1%) 하락폭에 비해 대기업 매출액증가율(7.2%→0.1%)이 더 큰 폭으로 둔화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중소기업(3.4%→3.4%)은 전년과 같았으나 대기업(8.6%→5.1%)은 상당폭 하락했으며 부채비율은 중소기업(153.9%→157.4%)이 소폭 상승한 반면 대기업(231.5%→216.2%)은 하락했다.

광주·전남지역 법인기업의 경영지표를 전국과 비교해 보면 성장성 지표의 경우 총자산증가율과 유형자산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매출액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수익성과 안정성 지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

## 국내 첫 여성은행장 탄생... 기업은행장 권선주

국내 시중은행에서 첫 여성 은행장이 나오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입 기업은행장에 권선주(57) 부행장(리스크관리본부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권 내정자는 1978년 기업은행에 입행하고 나서 늘 여성 최초 지역본부장, 여성 최초 부행장 등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리스크관리본부장, 금융소비자보



호엔터장, 카드사업본부장 등 기업은행 주요 요직을 거처며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 내정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면 기업은행장으로 부임한다. /연합뉴스

**"프리미엄 빌라의 새로운 기준" 미림빌 선착순 분양중!**

즉시입주

- 최고급 도시형 생활주택
- 최고의 전망과 학군
- 엘리베이터 설치
- 친환경 편백나무 시공
- 최고급 인테리어 시공
- 고급 가스오븐렌지 · 식탁 설치

1층 주차장	2층 A타입 27평 2세대, B타입 21평 2세대	4층 A타입 27평 2세대, B타입 21평 2세대
3층 A타입 27평 2세대, B타입 21평 2세대	5층 A타입 33평 2세대, B타입 28평 2세대	

분양문의 011-611-1288 · 062-372-1607 해남 동초등학교 후문 앞(성동리회관 옆)

**포그리고 일할때 역시 포그리**

무릎통증 예방

포그리 착용이 필요할 때

- ☑ 포그리고 발일 작업 시
- ☑ 포그리고 하우스 작업할 시
- ☑ 포그리고 농식품 가공 작업시
- ☑ 포그리고 산업체 용접 또는 조립작업시
- ☑ 포그리고 레저 등 휴식할때
- ☑ 포그리고하는 그 외 모든 작업시

포그리 (주)에 문의 [본사대표전화] 062-652-2587 [광주전남총판] 해남포래어션 062-603-1801

Gmarket \* AUCTION 에서 '포그리' 구매 [판매처] 전국의 농민시장, 철물점, 농자재판매점 등